



ARCHDIOCESES OF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DIOCESES OF FRESNO, MONTEREY, OAKLAND, ORANGE,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JOSE, SANTA ROSA AND STOCKTON
BYZANTINE CATHOLIC EPARCHY OF VAN NUYS, MARONITE CATHOLIC EPARCHY OF OUR LADY OF LEBANON OF LOS ANGELES

주민 발의안 8번에 관한 캘리포니아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서

결혼의 정의를 재 정립하기위한 헌법 개정안

2008년 8월 1일

“오직 남녀 간의 완전하고 변치않는 사랑만이 모든 인류의 가정이 될수있는 공동체의 근간으로 작용할수 있다.”

-2006년 5월 11일 결혼과 가정에 관한 요한 바오로 2세 연구소 에서 행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연설 중에서

주민발의안 8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논점은 교회와 정부에 앞서서 존재해 왔고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인적 제도인 “결혼”이라는 주제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처럼 결혼제도는 사회가 안정적이고 번창하고 또한 서로 친교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것 입니다. 비록 문화적 차이는 존재해 왔지만 결혼제도가 인종 번식과 인류의 존속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15일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전의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 정책에 있어서 급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리 사회에 많



ARCHDIOCESES OF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DIOCESES OF FRESNO, MONTEREY, OAKLAND, ORANGE,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JOSE, SANTA ROSA AND STOCKTON
BYZANTINE CATHOLIC EPARCHY OF VAN NUYS, MARONITE CATHOLIC EPARCHY OF OUR LADY OF LEBANON OF LOS ANGELES

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 이 판정은 결혼제도의 생리적, 유기체적인 현실과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법 제도에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경시하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이해를 무시하고 있다.
- 이 판정은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18세 이상의 성인들 간의 계약적인 관계인 “동반적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더 이상 어린이는 이 제도의 핵심적인 사회적 구성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앙의 교사인 우리들은 성서의 계시와 지혜로운 교회의 전통과 많은 성인 성녀들의 경험과 예지를 빌어 그리고 또한 보편적인 이성에 비추어 모든 신앙깊은 천주교 신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권유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1603장과 1604장에서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ARCHDIOCESES OF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DIOCESES OF FRESNO, MONTEREY, OAKLAND, ORANGE,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JOSE, SANTA ROSA AND STOCKTON
BYZANTINE CATHOLIC EPARCHY OF VAN NUYS, MARONITE CATHOLIC EPARCHY OF OUR LADY OF LEBANON OF LOS ANGELES

“하느님 자신이 결혼제도를 세우셨다. 인간이 창조주의 손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결혼의 소명을 뜻하는 것이다. 결혼제도가 세기에 걸쳐 여러가지 문화적, 사회구조적 또 영성적 경향의 변화를 겪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제도가 아니다. 인간 개인뿐 아니라 인간 사회나 그리스도교 공동체 모두의 안녕은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건강상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있다.”

우리 주교들은 이 모든것을 감안하여 캘리포니아의 천주교 신자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결혼제도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동성결합은 이성결합과 같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여자의 결혼은 단지 자연의 의도인 양성간의 보충적인 역할만을 내포하는것이 아니라 생명 번식을 위한 능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결혼관계안에 태어나고 양쪽부모에 의해 양육되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는 독신인 부모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바치는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ARCHDIOCESES OF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DIOCESES OF FRESNO, MONTEREY, OAKLAND, ORANGE,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JOSE, SANTA ROSA AND STOCKTON
BYZANTINE CATHOLIC EPARCHY OF VAN NUYS, MARONITE CATHOLIC EPARCHY OF OUR LADY OF LEBANON OF LOS ANGELES

둘째, 우리는 결혼제도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로써 인간성이 완성되고 풍부해지며 영구화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으로 결합할때 그들은 새로운 인간생명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로 자기자신들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어떤 다른결합도, 그것이 관련자들에게 안정과 동반자관계를 제공해줄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제도만이 인간 문명의 원천이며 모든인류의 가정인 이 사회의 근간이 되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의 반영이므로 이를 지지해야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모두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존엄성을 가지는 하느님의 자녀라는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견지함에 있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경우에도 그들을 비난해서는 않습니다.

넷째, 우리는 인류가족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ARCHDIOCESES OF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DIOCESES OF FRESNO, MONTEREY, OAKLAND, ORANGE,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JOSE, SANTA ROSA AND STOCKTON
BYZANTINE CATHOLIC EPARCHY OF VAN NUYS, MARONITE CATHOLIC EPARCHY OF OUR LADY OF LEBANON OF LOS ANGELES

다섯째,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써 주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투표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된다” 라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번이 상정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전통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고 어떤 다른 계약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혜택도 손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민발의안 8번의 통과를 위하여 가톨릭 신자들의 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를 요망하며 11월 투표에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여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